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0차 회의

보고일자	2026. 9. 17.	보고 사항
공개여부	공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

제 출 자	국민참여위원장
제출일자	2026. 9. 17.

I.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미래 대입제도를 구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25.12~)
 -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AI 전환, 학령 인구감소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주요방향과 핵심검토의제*를 제안
 - * (목적 및 방향) ①학습 및 수업 혁신 촉진, ②공교육 중심성 회복, ③공정성 확보 (핵심검토의제) ①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②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③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대입전형 시기 조정)
- 교육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을 주는 대입제도는 전문적 의견과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국민의 의견을 내실있게 수렴 필요
 - 향후 10년을 고려한 대입제도의 방향과 핵심검토의제에 대한 국민 참여위원회 숙의*를 실시하여 숙고된 국민의견 청취
 - * 단편적인 의견 청취가 아닌, 숙의 전 충분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깊이있는 토의를 통해 국민의 숙고된 의견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 등을 청취하여 분석

□ 의견수렴 의제

- ❖ 체계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대입제도 공론화 TF*’를 구성·운영하고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진행
 - * (구성) 국가교육위원장, 국민참여위원장, 대입전문가 및 공론화 전문가 등 13명 (역할) 공론화 필요 의제 논의, 공론화 및 숙의 방식 논의 등
 - ※ 국가교육위원회 보고경과 :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계획(안)(2026-7차회의)
대입제도 의견수렴계획(안)(2026-8차회의)

- (의견수렴의제) 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의 방향
 - ②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대입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 진행
- 핵심의제의 중요성·복잡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론화 추진

□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개요

- (일시/장소) 8.29(토) 14:00 ~ 8.30(일) 15:30 / YBM 연수원(경기도 화성시)
- (참여자) 국민참여위원 203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180명 참여

연령	인원	비율	지역	인원	비율
10대이하	17명	9.5%	수도권	74명	41.1%
20~30대	65명	36.1%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48명	26.7%
40~50대	58명	32.2%	비수도권 (그 외 도)	58명	32.2%
60대 이상	40명	22.2%	계	180명	100%
계	180명	100%			

직능(복수선택)	인원	비율	직능(복수선택)	인원	비율
고등학생	10명	5.6%	유·초·중·고 전·현직 교원	26명	14.4%
대학생·대학원생	48명	26.7%	대학·전문대학 교직원	20명	11.1%
학부모(유·초·중·고 자녀)	36명	20.0%	교육행정·연구기관종사자	15명	8.3%
학부모(대학생 자녀)	13명	7.2%	사교육기관 종사자	7명	3.9%
기타	45명	25.0%	합계	220명	122.2%

- (진행방식) 먼저 미래 대입제도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후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심화된 쟁점까지 다층적으로 토의
 - ※ (세션1) 미래 대입제도 방향성 토의 → (세션2) 서·논술형 이해 및 토의 → (세션3) 쟁점 및 입장의 이해와 토의 → (세션4) 쟁점 심화 토의 → (세션5) 개선 및 대안 모색 → (세션6) 종합정리 및 마무리 (상세계획은 <참고1> 참조)
 - 7~8명으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연령·성별·직능을 고르게 배치
 - 투명한 운영을 위해 토론회를 공개하였으며, 발제·질의응답·소그룹 논의결과 공유는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실시
- (의견조사) 숙의 전·후 동일 질문으로 의견조사 실시(정량+정성, 참고2)

의견조사문항	문항수	답변형태
대입제도 방향성	1	제시된 방향성 중 중요한 것 3가지 선택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입장	1	4점척도(매우필요~전혀필요없음)+모르겠다 ※ 의견 자유기술 항목 포함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입장	1	4점척도(매우필요~전혀필요없음)+모르겠다 ※ 의견 자유기술 항목 포함
우려사항·비중·시기·도입방식	4	각 선택지 중 택1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	6	5점척도(매우필요~전혀필요없음)+모르겠다
서·논술형 평가 관련 준비 필요사항	15	5점척도(매우필요~전혀필요없음)+모르겠다
숙의 과정에 대한 설문 (숙의 후만 진행)	5	5점척도(매우필요~전혀필요없음)+모르겠다 ※ 의견 자유기술 항목 포함

II.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¹⁾

1

주요 숙의 결과

□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성

- 미래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 ‘대입제도 변화를 통한 학교교육과 학습 변화 선도’ 順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선택지	응답비율	선택지	응답비율
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	20.2%	⑤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존중	15.4%
②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학교교육과 학습의 변화 선도	20.2%	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11.3%
③ 사교육 의존 완화	8.1%	⑦ 기타	1.1%
④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23.7%	합계	100%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 필요 72.8%, 불필요 22.8%

구분	매우필요함 (4점)	필요함 (3점)	필요하지않음 (2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1점)	모르겠음	평균점수 (4점기준)
숙의 후	필요 72.8%		불필요 22.8%		유보	3.01
	30.0%(54명)	42.8%(77명)	15.0%(27명)	7.8%(14명)	4.4%(8명)	
숙의 전	30.0%(54명)	46.1%(83명)	15.0%(27명)	6.7%(12명)	2.2%(4명)	3.06
변화	-	△3.3%p	-	+1.1%p	+2.2%p	△0.05

- (숙의결과) 숙의 참여자 중 72.8%가 고교 정기시험(중간·기말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비중 확대가 필요(매우필요+필요)하다고 응답
- (변화) 숙의 이후 필요 입장은 소폭 감소(3.3%p)하였으며 불필요 입장은 소폭 증가(1.1%p), 입장의 강도를 고려한 평균점수(4점기준)는 소폭 감소(0.05점)
- (세부분석) 대부분의 연령에서 고교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60~80%), 40대가 상대적으로 낮음(50.0%)
 - 대부분의 직능에서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70~80%), 학부모(유·초·중·고 58.3%, 대학 61.5%)가 상대적으로 낮음

1) 숙의 후 의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필요 55.5%, 불필요 41.7%

<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 >

구분	매우필요함 (4점)	필요함 (3점)	필요하지않음 (2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1점)	모르겠음	평균점수 (4점기준)
숙의 후	필요 55.5%		불필요 41.7%		유보	2.65
	23.3%(42명)	32.2%(58명)	25.0%(45명)	16.7%(30명)	2.8%(5명)	
숙의 전	20.0%(36명)	38.3%(69명)	20.0%(36명)	17.8%(32명)	3.9%(7명)	2.64
변화	+3.3%p	△6.1%p	+5.0%p	△1.1%p	△1.1%p	+0.01

- (숙의결과) 숙의 참여자 중 55.5%가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매우필요+필요)하다고 응답
- (변화) 숙의 후 필요 응답자는 소폭 감소(2.8%p), 불필요 응답자는 소폭 증가(3.9%p), 평균점수(4점기준)는 2.65점으로 소폭 증가(0.01점)

❖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필요 입장과 불필요 입장 변화에 대한 분석

- (불필요 → 필요) 15명 변경. 서·논술형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응답점수가 높아짐
- (필요 → 불필요) 22명 변경. 이 중에서 자유기술항목을 작성한 15명의 의견을 분석하면 구체적인 로드맵, 채점체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 외 수능 자격고사화, 수시 비중 확대, 대학별 논술 선호 등의 의견이 제시됨

- (세부결과) 숙의 후 10대, 고등학생, 대학·전문대학 교직원의 필요 응답자가 증가하고 40~60대, 교원, 학부모의 필요 응답자는 감소

※ 숙의 후 필요 응답자 변화 : 10대 29.4%p↑, 40대 13.6%p↓, 50대 13.9%p↓, 60대 7.5%p↓
고등학생 50.0%p↑, 대학관계자 10.0%p↑, 유초중고 학부모 13.9%p↓, 유초중고 교원 19.2%p↓

- 불필요·유보 응답자 일부는 자유응답항목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시범도입·준비 등 요건을 제시*

* 자유응답 기술 내용 : “필요는 하나 시범 도입 등 검증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 다만 시기나 방법은 논의가 필요”, “아직 준비 부족으로 반대했지만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조건부 찬성입니다. 수능시험 수학에서는 객관식, 단답형으로 출제해서 어느정도 서·논술형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실시한다면 국어과목만 먼저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대

- 전반적으로 서·논술형 평가의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높으며, 특히 서·논술형 평가가 수업 방식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매우동의+동의 71.7%, 평균점수 3.85점)
- 특히 유·초·중·고 교원, 대학·전문대학 교직원,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등의 서·논술형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숙의 후 서·논술형 평가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평균점수)가 소폭 증가하였음

<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대 관련 평균점수(5점기준) >

기대	숙의 전	숙의 후	변화
가. 사고력·창의력 향상에 도움	3.69점	3.73점	+0.04
나. 수업 방식 변화에 도움	3.74점	3.85점	+0.11
다. 능동적 학습(질문·탐구)에 도움	3.70점	3.79점	+0.09

□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우려

-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율이 높으며, 여러 우려사항 중 하나를 택하는 질문에서는 채점 공정성(48.3%)이 가장 높았음
- 대체로 유·초·중·고 학부모 등의 우려정도(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초·중·고 교원 등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숙의 후 우려정도(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평가 공정성 우려정도(평균점수)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우려 평균점수(5점기준) >

우려	숙의 전	숙의 후	변화
라. 평가 공정성 우려	3.85점	3.42점	△0.43
마. 사교육 의존 심화	3.87점	3.67점	△0.20
바. 교육 격차 심화	3.72점	3.66점	△0.06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방식·비중·시기에 대한 인식

- (도입방식) ‘일부 영역 도입 후 확대’(36.7%), ‘일부 영역에 도입’(30.0%), ‘도입 반대’(26.7%), ‘전 영역에 도입’(5.5%) 順으로 응답
- (출제비중) ‘40% 미만’(42.8%), ‘도입 반대’(26.7%), ‘40~60%’(17.2%), ‘60% 이상’(8.9%), ‘100%’(3.3%) 順으로 응답
- (도입시기) ‘2037~2038학년도’(39.4%), ‘도입 반대’(25.0%), ‘2033~2034학년도’(21.7%), ‘2035~2036학년도’(11.1%) 順으로 응답
- (변화) 숙의 후 수능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 방식, 출제 비중, 도입 시기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응답이 증가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불필요 입장이나 도입방식·범위·시기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에 대한 분석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75명(41.7%) 중 40명(22.2%)은 ‘도입반대’ 항목이 아닌 수능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방식’, ‘시기’, ‘비중’에 대한 의견을 제출
- 이들은 전 연령 및 직능에 분포하고 있으나, 당사자성이 높은 ‘10대’, ‘40대’, ‘학부모’, ‘유·초·중·고 교원’ 그룹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로 ‘일부영역에 도입’, ‘40% 미만 출제’, ‘2037~2038학년도 도입’을 선택하였음

□ 서·논술형 평가 준비 필요사항

- (고교 내신)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가 높았음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준비필요사항 평균점수(5점기준) >

고교 내신	숙의 전	숙의 후	변화
가. 탐구·토론·글쓰기 등 수업 방식 변화	4.39점	4.41점	+0.02
나. 교사 업무 여건 조성	4.55점	4.57점	+0.02
다. 교사 평가 전문성 연수 확대	4.50점	4.54점	+0.04
라. 교사 중 전문채점관 양성	4.08점	4.19점	+0.11
마.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4.40점	4.44점	+0.03
바. AI 채점지원시스템 개발·활용	4.06점	4.14점	+0.08
사. 채점기준 제공·이의제기 절차 체계화	4.53점	4.65점	+0.12
아. 이의제기 학교·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4.54점	4.69점	+0.15
자. 교육청-교육부 평가지원체계 강화	4.57점	4.67점	+0.10

- (수능)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와 ‘채점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확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수능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준비필요사항 평균점수(5점기준) >

수능	숙의 전	숙의 후	변화
가. 학교교육의 서·논술형 수업·평가 내실화	4.34점	4.23점	△0.10
나.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	4.47점	4.55점	+0.08
다. 예시문항과 채점기준 사전 공개	4.37점	4.37점	-
라. 교사 전문채점관 양성·확보	4.21점	4.30점	+0.09
마. AI 채점지원시스템 개발·보급	4.14점	4.22점	+0.08
바. 채점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확립	4.53점	4.59점	+0.06

4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 (만족도) 만족(매우만족+만족) 비율이 75.6%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응답
- (공정성) 공정(매우공정+공정) 비율이 78.4%로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응답
- (참여성실도) 98.9%가 성실하게 참여(매우그렇다+그렇다)하였다고 응답
- (정책이해도) 92.2%가 대입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 (나와 다른 결정에 대한 신뢰) 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그렇다, 51.1%)고 응답(보통 31.1%, 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 17.8%)

III. 향후 추진계획(안)

- ☐ 대입제도 숙의 결과 국민참여위원회 안내 : 9.17(목)
- ☐ 세부 쟁점에 대한 공론화 지속 추진 : 9월~
- ☐ 대입제도 현장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분석 : ~10월

※ 현재 분석 진행 중으로 결과는 10월 본위원회 보고 예정

1.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미래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방향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골라주세요.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	111	20.6%	109	20.2%	△0.4%p
②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 학습의 변화 선도	111	20.6%	109	20.2%	△0.4%p
③ 사교육 의존 완화	64	11.9%	44	8.1%	△3.7%p
④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116	21.5%	128	23.7%	+2.2%p
⑤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 존중	48	8.9%	83	15.4%	+6.5%p
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	85	15.7%	61	11.3%	△4.4%p
⑦ 기타(직접입력)	5	0.9%	6	1.1%	+0.2%p
합계	540	100%	540	100%	-

2. 서·논술형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정기고사(중간·기말)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매우 필요하지 않다	12	6.7%	14	7.8%	+1.1%p
② 필요하지 않다	27	15.0%	27	15.0%	0.0%p
③ 필요하다	83	46.1%	77	42.8%	△3.3%p
④ 매우 필요하다	54	30.0%	54	30.0%	0.0%p
⑤ 모르겠다	4	2.2%	8	4.4%	+2.2%p
합계	180	100%	180	100%	-

2.2. 위원님께서는 수능에서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매우 필요하지 않다	32	17.8%	30	16.7%	△1.1%p
② 필요하지 않다	36	20.0%	45	25.0%	+5.0%p
③ 필요하다	69	38.3%	58	32.2%	△6.1%p
④ 매우 필요하다	36	20.0%	42	23.3%	+3.3%p
⑤ 모르겠다	7	3.9%	5	2.8%	△1.1%p
합계	180	100%	180	100%	-

2.3. 위원님께서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채점 공정성 우려	92	51.4%	87	48.3%	△3.1%p
② 사교육 확대 우려	29	16.2%	25	13.9%	△2.3%p
③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우려	21	11.7%	25	13.9%	+2.2%p
④ 대규모 시험에서 단기간에 채점하기 어렵다는 우려	17	9.5%	20	11.1%	+1.6%p
⑤ 큰 우려사항 없음	8	4.5%	5	2.8%	△1.7%p
기타(직접입력)	12	6.7%	18	10.0%	+3.3%p
합계	179*	100.0%	180	100%	-

* 응답오류 1인(복수선택) 제외

2.4. 위원님께서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전 영역에 도입	22	12.2%	10	5.5%	△6.7%p
② 일부 영역에 도입 후 전 영역으로 확대	62	34.4%	66	36.7%	+2.2%p
③ 일부 영역에 도입	46	25.6%	54	30.0%	+4.4%p
④ 도입 반대	48	26.7%	48	26.7%	0.0%
⑤ 모르겠다	2	1.1%	2	1.1%	0.0%
합계	180	100%	180	100%	-

2.5. 위원님께서서는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선다형문항의 비중이 높게 (서·논술형 문항 40% 미만)	69	38.3%	77	42.8%	+4.4%p
② 두 유형의 문항 비중이 비슷하게 (서·논술형 문항 40~60%)	36	20.0%	31	17.2%	△2.8%p
③ 서·논술형문항 비중이 높게 (서·논술형 문항 60% 이상)	18	10.0%	16	8.9%	△1.1%p
④ 전부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 (서·논술형 문항 100%)	9	5.0%	6	3.3%	△1.7%p
⑤ 서·논술형 문항 출제 반대	46	25.6%	48	26.7%	+1.1%p
⑥ 모르겠다	2	1.1%	2	1.1%	0.0%p
합계	180	100%	180	100%	-

2.6. 위원님께서서는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경우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① '26년 기준 초등학교 5~6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 (2033~2034학년도 수능)	56	31.1%	39	21.7%	△9.4%p
② '26년 기준 초등학교 3~4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 (2035~2036학년도 수능)	28	15.6%	20	11.1%	△4.4%p
③ '26년 기준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 (2037~2038학년도 수능)	41	22.8%	71	39.4%	+16.7%p
④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반대	47	26.1%	45	25.0%	△1.1%p
⑤ 모르겠다	8	4.4%	5	2.8%	△1.7%p
합계	180	100%	180	100%	-

3. 다음은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한 다양한 주장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가. 사고력·창의력 향상에 도움					
5. 매우 동의한다	46	25.6%	53	29.4%	+3.9%p
4. 동의한다	77	42.8%	66	36.7%	△6.1%p
3. 보통이다	23	12.8%	29	16.1%	+3.3%p
2. 동의하지 않는다	16	8.9%	18	10.0%	+1.1%p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	8.9%	13	7.2%	△1.7%p
모르겠다	2	1.1%	1	0.6%	△0.6%p
나. 수업 방식 변화에 도움					
5. 매우 동의한다	49	27.2%	55	30.6%	+3.3%p
4. 동의한다	74	41.1%	74	41.1%	0.0%p
3. 보통이다	25	13.9%	27	15.0%	+1.1%p
2. 동의하지 않는다	19	10.6%	14	7.8%	△2.8%p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6.1%	9	5.0%	△1.1%p
모르겠다	2	1.1%	1	0.6%	△0.6%p
다. 능동적 학습(질문·탐구)에 도움					
5. 매우 동의한다	41	22.8%	50	27.8%	+5.0%p
4. 동의한다	81	45.0%	78	43.3%	△1.7%p
3. 보통이다	28	15.6%	25	13.9%	△1.7%p
2. 동의하지 않는다	17	9.4%	16	8.9%	△0.6%p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6.1%	10	5.6%	△0.6%p
모르겠다	2	1.1%	1	0.6%	△0.6%p
라. 평가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5. 매우 동의한다	63	35.0%	42	23.3%	△11.7%p
4. 동의한다	57	31.7%	51	28.3%	△3.3%p
3. 보통이다	31	17.2%	36	20.0%	+2.8%p
2. 동의하지 않는다	23	12.8%	39	21.7%	+8.9%p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2.8%	11	6.1%	+3.3%p
모르겠다	1	0.6%	1	0.6%	0.0%p
마. 사교육 의존이 심화됨					
5. 매우 동의한다	58	32.2%	53	29.4%	△2.8%p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4. 동의한다	64	35.6%	55	30.6%	△5.0%p
3. 보통이다	35	19.4%	37	20.6%	+1.1%p
2. 동의하지 않는다	15	8.3%	25	13.9%	+5.6%p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3.3%	9	5.0%	+1.7%p
모르겠다	2	1.1%	1	0.6%	△0.6%p
바. 교육 격차가 심화됨					
5. 매우 동의한다	56	31.1%	51	28.3%	△2.8%p
4. 동의한다	53	29.4%	56	31.1%	+1.7%p
3. 보통이다	37	20.6%	39	21.7%	+1.1%p
2. 동의하지 않는다	23	12.8%	25	13.9%	+1.1%p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3.9%	8	4.4%	+0.6%p
모르겠다	4	2.2%	1	0.6%	△1.7%p
합계	180	100%	180	100%	-

4. 서·논술형 평가체제 현장 안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다음은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안되는 다양한 방안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다음 각 방안이 현장 안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가. 탐구·토론·글쓰기 등 수업 방식 변화					
5. 매우 중요하다	94	52.2%	95	52.8%	+0.6%p
4. 중요하다	70	38.9%	72	40.0%	+1.1%p
3. 보통이다	7	3.9%	8	4.4%	+0.6%p
2. 중요하지 않다	7	3.9%	3	1.7%	△2.2%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6%	2	1.1%	+0.6%p
모르겠다	1	0.6%	0	0.0%	△0.6%p
나. 교사 업무 여건 조성					
5. 매우 중요하다	116	64.4%	119	66.1%	+1.7%p
4. 중요하다	51	28.3%	48	26.7%	△1.7%p
3. 보통이다	7	3.9%	11	6.1%	+2.2%p
2. 중요하지 않다	4	2.2%	1	0.6%	△1.7%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6%	1	0.6%	0.0%p
모르겠다	1	0.6%	0	0.0%	△0.6%p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다. 교사 평가 전문성 연수 확대					
5. 매우 중요하다	119	66.1%	114	63.3%	△2.8%p
4. 중요하다	39	21.7%	55	30.6%	+8.9%p
3. 보통이다	12	6.7%	5	2.8%	△3.9%p
2. 중요하지 않다	5	2.8%	2	1.1%	△1.7%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1.7%	3	1.7%	0.0%p
모르겠다	2	1.1%	1	0.6%	△0.6%p
라. 교사 중 전문채점관 양성					
5. 매우 중요하다	85	47.2%	94	52.2%	+5.0%p
4. 중요하다	50	27.8%	49	27.2%	△0.6%p
3. 보통이다	22	12.2%	20	11.1%	△1.1%p
2. 중요하지 않다	12	6.7%	9	5.0%	△1.7%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9	5.0%	7	3.9%	△1.1%p
모르겠다	2	1.1%	1	0.6%	△0.6%p
마.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5. 매우 중요하다	104	57.8%	104	57.8%	0.0%p
4. 중요하다	52	28.9%	58	32.2%	+3.3%p
3. 보통이다	14	7.8%	12	6.7%	△1.1%p
2. 중요하지 않다	6	3.3%	4	2.2%	△1.1%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1%	2	1.1%	0.0%p
모르겠다	2	1.1%	0	0.0%	△1.1%p
바. AI 채점지원시스템 개발·활용					
5. 매우 중요하다	76	42.2%	84	46.7%	+4.4%p
4. 중요하다	55	30.6%	56	31.1%	+0.6%p
3. 보통이다	32	17.8%	27	15.0%	△2.8%p
2. 중요하지 않다	4	2.2%	5	2.8%	+0.6%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9	5.0%	7	3.9%	△1.1%p
모르겠다	4	2.2%	1	0.6%	△1.7%p
사. 채점기준 제공·이의제기 절차 체계화					
5. 매우 중요하다	108	60.0%	127	70.6%	+10.6%p
4. 중요하다	61	33.9%	46	25.6%	△8.3%p
3. 보통이다	8	4.4%	5	2.8%	△1.7%p
2. 중요하지 않다	1	0.6%	1	0.6%	0.0%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6%	1	0.6%	0.0%p
모르겠다	1	0.6%	0	0.0%	△0.6%p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아. 이의제기 학교·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5. 매우 중요하다	121	67.2%	133	73.9%	+6.7%p
4. 중요하다	43	23.9%	39	21.7%	△2.2%p
3. 보통이다	11	6.1%	8	4.4%	△1.7%p
2. 중요하지 않다	3	1.7%	0	0.0%	△1.7%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1%	0	0.0%	△1.1%p
모르겠다	0	0.0%	0	0.0%	0.0%p
자. 교육청-교육부 평가지원체계 강화					
5. 매우 중요하다	123	68.3%	131	72.8%	+4.4%p
4. 중요하다	40	22.2%	42	23.3%	+1.1%p
3. 보통이다	15	8.3%	4	2.2%	△6.1%p
2. 중요하지 않다	0	0.0%	2	1.1%	+1.1%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1%	1	0.6%	△0.6%p
모르겠다	0	0.0%	0	0.0%	0.0%p
합계	180	100%	180	100%	-

4.2. 다음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시 현장 안착을 위해 제안되는 다양한 방안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다음 방안이 현장 안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가. 학교교육에서 서·논술형 수업·평가 내실화					
5. 매우 중요하다	99	55.0%	83	46.1%	△8.9%p
4. 중요하다	56	31.1%	68	37.8%	+6.7%p
3. 보통이다	14	7.8%	18	10.0%	+2.2%p
2. 중요하지 않다	5	2.8%	7	3.9%	+1.1%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3.3%	3	1.7%	△1.6%p
모르겠다	0	0.0%	1	0.6%	+0.6%p
나.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					
5. 매우 중요하다	111	61.7%	111	61.7%	0.0%p
4. 중요하다	49	27.2%	59	32.8%	+5.6%p
3. 보통이다	15	8.3%	9	5.0%	△3.3%p
2. 중요하지 않다	3	1.7%	0	0.0%	△1.7%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1%	1	0.6%	△0.5%p
모르겠다	0	0.0%	0	0.0%	0.0%p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증감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다. 예시문항과 채점기준 숙의 전 공개					
5. 매우 중요하다	100	55.6%	96	53.3%	△2.3%p
4. 중요하다	52	28.9%	58	32.2%	+3.3%p
3. 보통이다	19	10.6%	15	8.3%	△2.3%p
2. 중요하지 않다	1	0.6%	5	2.8%	+2.2%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2.2%	2	1.1%	△1.1%p
모르겠다	4	2.2%	4	2.2%	0.0%p
라. 교사 전문채점관 양성·확보					
5. 매우 중요하다	99	55.0%	99	55.0%	0.0%p
4. 중요하다	40	22.2%	53	29.4%	+7.2%p
3. 보통이다	24	13.3%	14	7.8%	△5.5%p
2. 중요하지 않다	7	3.9%	8	4.4%	+0.5%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8	4.4%	5	2.8%	△1.6%p
모르겠다	2	1.1%	1	0.6%	-0.5%p
마. AI 채점지원시스템 개발·보급					
5. 매우 중요하다	88	48.9%	89	49.4%	+0.5%p
4. 중요하다	49	27.2%	58	32.2%	+5.0%p
3. 보통이다	27	15.0%	23	12.8%	△2.2%p
2. 중요하지 않다	3	1.7%	4	2.2%	+0.5%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	5.6%	6	3.3%	△2.3%p
모르겠다	3	1.7%	0	0.0%	△1.7%p
바. 채점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확립					
5. 매우 중요하다	116	64.4%	123	68.3%	+3.9%p
4. 중요하다	51	28.3%	45	25.0%	△3.3%p
3. 보통이다	9	5.0%	7	3.9%	△1.1%p
2. 중요하지 않다	1	0.6%	2	1.1%	+0.5%p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1.7%	2	1.1%	△0.6%p
모르겠다	0	0.0%	1	0.6%	+0.6%p
합계	180	100%	180	100%	-

5. 숙의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5.1. 위원님께서 이번 대입제도 숙의 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⑤ 매우 만족	48	26.7%
④ 만족	88	48.9%
③ 보통이다	31	17.2%
② 불만족	10	5.6%
① 매우 불만족	3	1.7%
합계	180	100%

5.2. 위원님께서 숙의 과정이 공정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⑤ 매우 공정했다	50	27.8%
④ 공정했다	91	50.6%
③ 보통이다	29	16.1%
② 공정하지 않았다	6	3.3%
①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4	2.2%
합계	180	100%

5.3. 위원님께서 다음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가. 나는 조사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다		
⑤ 매우 그렇다	133	73.9%
④ 그렇다	45	25.0%
③ 보통이다	2	1.1%
② 그렇지 않다	0	0.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나.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입제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⑤ 매우 그렇다	94	52.2%
④ 그렇다	72	40.0%
③ 보통이다	10	5.6%
② 그렇지 않다	2	1.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1.1%
다. 정부가 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여도 정부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⑤ 매우 그렇다	38	21.1%
④ 그렇다	54	30.0%
③ 보통이다	56	31.1%
② 그렇지 않다	18	10.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4	7.8%
합계	180	100%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 연령대별 내신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에 대한 입장 및 인식 강도 변화 차이 >

연령	인원수	필요입장비율 / 평균점수(4점 기준)		변화 정도	
		숙의 전	숙의 후	입장 비율	평균 점수
10대	17	58.8% / 2.69	76.5% / 2.88	+17.6%p	+0.19
20대	34	70.6% / 2.90	64.7% / 2.94	-5.9%p	+0.04
30대	31	71.0% / 2.93	74.2% / 3.03	+3.2%p	+0.10
40대	22	59.1% / 2.90	50.0% / 2.70	-9.1%p	-0.20
50대	36	91.7% / 3.29	77.8% / 3.11	-13.9%p	-0.18
60대 이상	40	87.5% / 3.31	85.0% / 3.15	-2.5%p	-0.16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연령대별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인식 강도 변화 차이 >

연령	총인원	필요입장비율 / 평균점수(4점 기준)		변화 정도	
		숙의 전	숙의 후	입장 비율	평균 점수
10대	17	17.6% / 1.87	47.1% / 2.40	+29.4%p	+0.53
20대	34	41.2% / 2.32	41.2% / 2.35	0.0%p	+0.03
30대	31	51.6% / 2.43	54.8% / 2.50	+3.2%p	+0.07
40대	22	59.1% / 2.62	45.5% / 2.52	-13.6%p	-0.10
50대	36	75.0% / 2.89	61.1% / 2.89	-13.9%p	-
60대 이상	40	80.0% / 3.15	72.5% / 2.97	-7.5%p	-0.18

2) 주 : 필요입장비율은 전체 위원 중 '필요하다'와 '매우필요하다'를 선택한 위원 비율, 평균점수는 '모르겠음'을 제외한 4점 척도 평균이며, 비율(점수)변화는 숙의 전후 필요입장비율(평균점수) 차이로 산출하였음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 직능별 내신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에 대한 입장 및 인식 강도 변화 차이 >

직능	인원수	필요입장비율 / 평균점수(4점 기준)		변화 정도	
		숙의 전	숙의 후	입장 비율	평균점수
고등학생	10	40.0% / 2.30	70.0% / 2.70	+30.0%p	+0.40
유·초·중등 학부모	36	69.4% / 2.82	58.3% / 2.74	-11.1%p	-0.08
유·초·중등 교원	26	76.9% / 3.33	80.8% / 3.25	+3.8%p	-0.08
대학(원)생	48	77.1% / 3.14	72.9% / 3.05	-4.2%p	-0.09
대학생 학부모	13	100.0% / 3.31	61.5% / 2.77	-38.5%p	-0.54
(전문)대학 교직원	20	85.0% / 3.20	85.0% / 3.20	0.0%p	0.00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15	80.0% / 3.43	80.0% / 3.14	0.0%p	-0.29
사교육 종사자	7	85.7% / 3.14	85.7% / 3.29	0.0%p	+0.15
기타	45	80.0% / 3.07	75.6% / 3.12	-4.4%p	+0.05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연령대별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인식 강도 변화 차이 >

직능	인원수	필요입장비율 / 평균점수(4점 기준)		변화 정도	
		숙의 전	숙의 후	입장 비율	평균점수
고등학생	10	0.0% / 1.60	50.0% / 2.50	+50.0%p	+0.90
유·초·중등 학부모	36	63.9% / 2.63	50.0% / 2.51	-13.9%p	-0.12
유·초·중등 교원	26	73.1% / 3.21	53.8% / 2.67	-19.2%p	-0.54
대학(원)생	48	47.9% / 2.50	50.0% / 2.55	+2.1%p	+0.05
대학생 학부모	13	92.3% / 3.23	69.2% / 2.85	-23.1%p	-0.38
(전문)대학 교직원	20	75.0% / 3.05	85.0% / 3.20	+10.0%p	+0.15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15	66.7% / 3.00	66.7% / 2.93	0.0%p	-0.07
사교육 종사자	7	71.4% / 2.71	71.4% / 3.00	0.0%p	+0.29
기타	45	57.8% / 2.42	51.1% / 2.51	-6.7%p	+0.09

3) 주 : 필요입장비율은 전체 위원 중 '필요하다'와 '매우필요하다'를 선택한 위원 비율, 평균점수는 '모르겠음'을 제외한 4점 척도 평균이며, 비율(점수)변화는 숙의 전후 필요입장비율(평균점수) 차이로 산출하였음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 지역별 내신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에 대한 입장 및 인식강도(평균점수) 변화 차이 >

지역	인원수	필요입장비율 / 평균점수(4점 기준)		변화 정도	
		숙의 전	숙의 후	입장 비율	평균점수
수도권	74	71.6% / 2.97	70.3% / 2.94	-1.4%p	-0.03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48	77.1% / 3.07	75.0% / 3.09	-2.1%p	+0.02
비수도권 (그 외 도)	58	81.0% / 3.16	74.1% / 3.02	-6.9%p	-0.14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지역별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인식강도(평균점수) 변화 차이 >

지역	인원수	필요입장비율 / 평균점수(4점 기준)		변화 정도	
		숙의 전	숙의 후	입장 비율	평균점수
수도권	74	52.7% / 2.45	50.0% / 2.49	-2.7%p	+0.04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48	58.3% / 2.66	56.3% / 2.68	-2.1%p	+0.02
비수도권 (그 외 도)	58	65.5% / 2.87	62.1% / 2.84	-3.4%p	-0.03

4) 주 : 필요입장비율은 전체 위원 중 '필요하다'와 '매우필요하다'를 선택한 위원 비율, 평균점수는 '모르겠음'을 제외한 4점 척도 평균이며, 비율(점수)변화는 숙의 전후 필요입장비율(평균점수) 차이로 산출하였음

붙임5

서·논술형 평가 기대와 우려에 대한 직능별 세부 분석

직능(복수응답)	숙의 전 조사 평균 (5점 기준)	숙의 후 조사 평균 (5점 기준)	점수 변화
가. 서·논술형 평가가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생	2.80	3.50	+0.70
유·초·중·고 학부모	3.44	3.53	+0.09
유·초·중·고 교원	3.96	4.12	+0.16
대학(원)생	3.65	3.80	+0.15
대학생 학부모	4.00	3.62	-0.38
(전문)대학 교직원	3.84	4.05	+0.21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4.00	3.87	-0.13
사교육 종사자	4.00	4.14	+0.14
기타	3.62	3.51	-0.11
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은 수업 방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생	2.70	3.60	+0.90
유·초·중·고 학부모	3.57	3.71	+0.14
유·초·중·고 교원	4.08	4.27	+0.19
대학(원)생	3.66	3.83	+0.17
대학생 학부모	4.42	4.00	-0.42
(전문)대학 교직원	4.11	4.05	-0.06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3.93	4.00	+0.07
사교육 종사자	4.29	4.29	0.00
기타	3.67	3.76	+0.09
다. 서·논술형 평가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동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생	2.70	3.20	+0.50
유·초·중·고 학부모	3.78	3.56	-0.22
유·초·중·고 교원	4.00	4.27	+0.27
대학(원)생	3.49	3.74	+0.25
대학생 학부모	4.15	3.92	-0.23
(전문)대학 교직원	4.05	4.11	+0.06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3.93	4.13	+0.20
사교육 종사자	3.86	4.00	+0.14
기타	3.62	3.67	+0.05

직능(복수응답)	숙의 전 조사 평균 (5점 기준)	숙의 후 조사 평균 (5점 기준)	점수 변화
라.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고등학생	4.00	3.30	-0.70
유·초·중·고 학부모	3.86	3.60	-0.26
유·초·중·고 교원	3.54	3.08	-0.46
대학(원)생	3.98	3.46	-0.52
대학생 학부모	3.54	3.38	-0.16
(전문)대학 교직원	3.90	3.30	-0.60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3.40	3.20	-0.20
사교육 종사자	3.71	3.14	-0.57
기타	3.84	3.43	-0.41
마. 서·논술형 평가체제에서 지금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생	4.10	3.80	-0.30
유·초·중·고 학부모	4.29	3.74	-0.55
유·초·중·고 교원	3.73	3.58	-0.15
대학(원)생	3.63	3.52	-0.11
대학생 학부모	4.00	3.69	-0.31
(전문)대학 교직원	3.80	3.70	-0.10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3.80	3.93	+0.13
사교육 종사자	3.57	3.14	-0.43
기타	3.77	3.58	-0.19
바.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고등학생	3.80	3.30	-0.50
유·초·중·고 학부모	4.09	3.91	-0.18
유·초·중·고 교원	3.65	3.50	-0.15
대학(원)생	3.50	3.54	+0.04
대학생 학부모	3.85	3.77	-0.08
(전문)대학 교직원	3.55	3.70	+0.15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3.60	3.80	+0.20
사교육 종사자	3.57	3.43	-0.14
기타	3.67	3.69	+0.02

참고1

국민참여위원회 대입제도 숙의토론회 상세계획

【1일차】 8월 29일(토) 14:00 ~ 21:00

시간	내용	비고
14:00~14:20	20' 숙의 전의견조사	
14:20~14:40	20' 개회(생)	국민의례·인사말씀, 7월 활동결과 공유
세션1. 미래 대입제도 방향성 토의(14:40~15:50)		
14:40~14:55	15' (발제)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성(생)	김동진 대입특위 위원(동산고 교사)
14:55~15:35	40' 소그룹 토의	
15:35~15:50	15' 소그룹 토의 결과 나눔(생)	
15:50~16:00	10' 휴식	
세션2. 서·논술형 평가 이해 및 토의(16:00~17:30)		
16:00~16:30	30' (발제) 대입제도와 서·논술형 평가(생)	이기돈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발제) AI를 활용한 평가(생)	이민석 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16:30~17:10	40' 소그룹 토의	
17:10~17:30	20' 질의응답(생)	
17:30~18:40	70' 저녁식사	
세션3. 쟁점과 입장 이해 및 토의(18:40~21:00)		
18:40~19:10	30' 찬반입장 발제(4인)(생)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前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정미라 경기 진덕고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 홍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19:10~19:40	30' 질의응답(생)	
19:40~20:45	65' 소그룹 토의	
20:45~21:00	15' 소그룹 토의 결과 나눔(생)	
21:00~	2일차 안내	숙소이동

【2일차】 8월 30일(일) 09:00 ~ 15:30

시간	내용	비고
09:00~09:20	20' 1일차 정리 · 2일차 안내	
세션4. 쟁점 심화 토의(09:00~10:30)		
09:20~10:30	70' 소그룹 토의	
10:30~10:45	15' 휴식	
세션5. 개선 및 대안 모색 토의(10:45~12:00)		
10:45~12:00	75' 소그룹 토의	
12:00~13:00	60' 점심식사	
세션6. 종합정리 및 마무리(13:00~15:30)		
13:00~13:50	50' 소그룹별 논의 종합	
13:50~14:35	45' 소그룹 토의 결과 나눔(생)	
14:35~15:15	40' 숙의 후 의견조사 및 휴식	
15:15~15:30	15' 폐회(생)	마무리 말씀, 단체사진 등

< 미래 대입제도 숙의를 위한 의견조사 >

국민참여위원님 안녕하세요.

미래 대입제도 숙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의는 어떤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타인과의 이성적 대화를 통해 공동체의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숙의는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숙의 전·숙의 후의 의견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숙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숙의 전·후 2회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은 첫 번째 조사입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원님의 조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조		이름	
휴대폰 번호			

1.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미래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방향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골라주세요.

- 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
- ②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 학습의 변화 선도
- ③ 사교육 의존 완화
- ④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 ⑤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 존중
- 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
- ⑦ 기타 : _____

2.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정기고사(중간·기말)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확대에 관해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2.2. 위원님께서는 수능에서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관해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2.3. 위원님께서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①채점 공정성 우려
- ②사교육 확대 우려
- ③학교교육을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우려
- ④대규모 시험에서 단기간에 채점하기 어렵다는 우려
- ⑤큰 우려사항 없음
- ⑥기타 : _____

2.4. 위원님께서서는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 영역에 도입
- ② 일부 영역에 도입 후 전 영역으로 확대
- ③ 일부 영역에 도입
- ④ 도입 반대
- ⑤ 모르겠다

2.5. 위원님께서서는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선다형문항의 비중이 높게 (서·논술형 문항 40% 미만)
- ② 두 유형의 문항 비중이 비슷하게 (서·논술형 문항 40~60%)
- ③ 서·논술형문항 비중이 높게 (서·논술형 문항 60% 이상)
- ④ 전부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 (서·논술형 문항 100%)
- ⑤ 서·논술형 문항 출제 반대
- ⑥ 모르겠다

2.6. 위원님께서서는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경우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6년 기준 초등학교 5~6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2033~2034학년도 수능)
- ② '26년 기준 초등학교 3~4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2035~2036학년도 수능)
- ③ '26년 기준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시기(2037~2038학년도 수능)
- ④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반대
- ⑤ 모르겠다

3. 다음은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한 다양한 주장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1.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2. 동의 하지 않는다	3. 보통 이다	4. 동의 한다	5. 매우 동의 한다	모르 겠다
가. 서·논술형 평가가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은 수업 방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서·논술형 평가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동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마. 서·논술형 평가체제에서 지금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바.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4. 서·논술형 평가체제 현장 안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다음은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안되는 다양한 방안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다음 각 방안이 현장 안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중요 하지 않다	2. 중요 하지 않다	3. 보통 이다	4. 중요 하다	5. 매우 중요 하다	모르 겠다
가. 탐구·토론·글쓰기 등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						
나.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						
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라. 교사 중 전문채점관 양성						
마.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바. AI 채점지원시스템 개발 및 활용						
사. 채점기준 제공,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체계화						
아. 이의제기에 대한 학교·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						
자. 교육청-교육부의 평가지원체계 강화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4.2. 다음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시 현장 안착을 위해 제안되는 다양한 방안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다음 방안이 현장 안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중요 하지 않다	2. 중요 하지 않다	3. 보통 이다	4. 중요 하다	5. 매우 중요 하다	모르 겠다
가. 학교교육에서 서·논술형 수업 및 평가 내실화						
나.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						
다. 예시문항과 채점기준 숙의 전 공개						
라. 교사 전문채점관 양성 및 확보						
마. AI 채점지원시스템 개발 및 보급						
바. 채점기준 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확립						

- 수능 서·논술형 평가 안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숙의 후 조사에만 포함] **5. 숙의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5.1. 위원님께서서는 이번 대입제도 숙의 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5.2. 위원님께서서는 숙의 과정이 공정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공정했다	매우 공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5.3. 위원님께서서는 다음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가. 나는 조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다					
나.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 하면서 대입제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다. 정부가 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여도 정부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